

• 마태복음 5:4; 고린도후서 7:9-11

애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복입니다.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더불어 내주하신 성령으로 애통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조적인 악들과 죄를 보게 하시고, 민감히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슬픔을 위해 울던 자가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애통)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이 찾아올 때 기뻐합니다. 그 근심을 통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곧 ‘가난한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보게 되어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의 응답은 ‘위로’입니다.

현실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유용한 답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때로 고통과 근심보다 더 힘든 것이 고독과 외면입니다.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내 눈물과 울부짖음에 담긴 상황과 의미 그대로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까?

- ① 성령께서 탄식하며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 ②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안기고 있습니까?